

송대 記體文의 공과 私

- 蘇轍의 記體文의 몇 가지 창작 특징 분석을 중심으로

장수현*

목 차

1. 서언
2. 소철 기체문의 창작 배경 - 송대 기체문의 특징
3. 공공성의 계승 - 공적인 영역에서의 기체문 창작
4. 자아찾기 - 사적인 영역에서의 기체문 창작
5. 결어

국문초록

北宋의 文人이자 政治家였던 蘇轍은 40여 년간 지방 관직에서 중앙 정부의 중요 직위까지 정치가로써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그가 살았던 방대한 시대 배경 속에서 정치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풍부한 경험을 하였는데,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가 모두 그의 문장에 집중적으로 투사되었고, 이로 인해 북송 문단에서 독보적인 한 일파를 이루었다. 그 중 소철의 記體文은 策論文이나 奏議文보다 작자의 개인의 내면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감정, 생각, 가치관, 상상력 등을 더욱 많이 담아냈다. 소철의 기체문은 그가 창작한 시기에 따라 시기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관직을 역임하던 시기에는 記事紀物을 위주로 썼고, 이후에는 사적인 공간에서 自我에 대해 쓴 것도 있다. 전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점차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외부로 표현하기보다는 내면으로 수용하고 다스리면서, 점차 감정을 섬세하고 풍부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소철의 기체문은 그 시기 문단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특징에도 부합하면서 그의 특징을 담아낸 것이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통번역학과 강사.

키워드: 소철, 송대 산문, 기체문, 기사기물, 자아지향

1. 서언

소철(1039-1112)은 宋 仁宗에서 宋 徽宗에 이르기까지 40여 년간 관직 생활을 하며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소철이 남긴 대부분의 문장에서 문학적 재능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적 이상, 풍부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 개인적인 사상, 감정의 세계도 보여주었다. 소철은 熙寧 新政시기 王安石과 정견이 맞지 않아 京師를 떠나 십수 년간 지방을 전전하였다. 그 후 또 형 蘇軾의 烏台詩案에 연루되어 監筠州鹽酒稅로 강등되었다. 宋 哲宗이 즉위하고 太后가 섭정을 하자 소철은 京師로 다시 불려가 尙書右丞이 되었고, 門下侍郎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후 태후의 섭정이 끝나고 철종이 직접 정사를 돌보게 되면서 筠州, 雷州, 循州로 폄적 당하였다. 宋 徽宗이 왕위를 계승하자 소철은 사면을 받고 북쪽으로 돌아가 潁川(지금의 河南 許昌市)에 거주하였다. 소철의 관직 생활을 살펴보면, 右司諫부터 中書舍人, 戶部侍郎, 翰林學士, 御史中丞, 尙書右丞, 門下侍郎까지 역임하였는데, 지방관에서부터 중추적인 재상의 역할까지 맡았었다. 이렇게 주요 관직을 역임함으로써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詩集傳》, 《春秋集解》, 《論語拾遺》, 《老子解》, 《古史》, 《龍川略志》, 《龍川別志》, 《欒城集》, 《欒城後集》, 《欒城第三集》, 《欒城應詔集》 등 여러 저술을 남겼다.¹⁾

그 중 소철의 기체문은 《欒城集》, 《欒城後集》에 남아 전해지고 있으며, 그가 남긴 전체 문장 중에 기체문은 비록 24편에 불과하지만 <廬山栖賢寺新修僧堂記>, <黃州快哉亭記>와 같은 名文이 있다. 소철의 기체문은 주로 소철이 중앙 관직을 떠나 지방에 머물렀던 시기에 썼는데, 그가 쓴 策論文, 奏議文에 비해 개인적인 思想을 더 담아냈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외부로 표

1) 張秀賢, 《蘇軾散文研究》, 北京師範大學博士論文, 2022년, 172쪽 참고.

현하기보다는 내면으로 깊이 숙고하거나 수용하여 섬세하고 풍부하게 드러내었다.

송대 기체문 창작은 공공기물을 그려냈던 唐代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개인화하는 경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창작 배경아래 소철 기체문 또한 공공기물을 그려내는 본래 기체문의 특징을 계승하여 쓴 면도 있고, 어느 정도 개인화하여 창작한 경향도 보인다. 소철의 24편의 기체문 가운데 <杭州龍井院訥齋記>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확한 창작 시기를 특정할 수 있다. 이에 시기별로 나누어 특징을 구분 짓는 것이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송대 기체문의 특징과 더불어 소철 기체문의 전체적인 창작 특징, 사상 및 내용 구성, 예술 표현 방식 등 몇 가지 측면에서 그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소철 기체문의 창작 배경 - 송대 기체문의 특징

기체문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존재했으나, 唐代에 이르러서야 독립적인 문체로서 성숙하였다. 그리고 宋代에 이르러 더욱 발전하고 변화를 거듭하였다. 唐代에는 일부 학자들이 唐代에 언급된 ‘記’를 ‘碑’, ‘刻’, ‘銘’ 등의 문체와 혼동하였으나, 宋代에 이르러서는 명확하게 구분 지어 인식하였고, 창작에 점차 제약이 없는, 비교적 자유롭게 쓰는 문체로 발전했다.²⁾ 즉, 기체문은 비문학적이고 실용적인 문체에서 벗어나 감정과 의미를 표현하는 문학적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며 심미적인 문학 산문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楊慶存은 《宋代散文研究》에서 송대 기체문의 네 가지 특징을 “뜻을 세우는 것이 높고 원대하며, 소재가 풍부하고, 구성은 변화무쌍하며, 駢語를 같이 취한다.”³⁾

2) 曾軍, 《從經史到文苑——“記”之文體內涵的源流及變遷》, 《江漢大學學報(人文科學版)》2007년 제1기, 101-104쪽 참고.

3) 楊慶存, 《宋代散文研究》, 北京:人民文學出版社, 2002년, 194쪽. “立意高遠, 題材豐富, 格局

라고 하였다.

당대에서 송대로 이어지는 기체문의 발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吳訥는 《文章辨体序說》에서 “‘記’라는 명칭은 <戴記>, <學記> 등의 글에서 시작되었다. ‘기’라는 문체는 《文選》에는 실리지 않았다. 후에 저자들은 韓退之의 <畫記>와 柳子厚의 산을 여행하며 쓴 여러 ‘기’를 이 문체의 정통으로 삼았다.”⁴⁾고 하였다. 南宋 叶适은 “‘기’는 비록 유증원에 이를 때까지 발전했으나, 아직 그 특유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구양수, 증공, 왕안석, 소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형태가 완전히 변화하였다.”⁵⁾라고 하였다.

吳訥는 기체문의 목적을 “대체로 ‘기’를 쓰는 목적은,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⁶⁾라고 하였다. 吳訥가 말한 바와 같이, 기체문은 주로 사건을 기록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많고, 실용적인 문체이다. 당대의 기체문은 주로 조정 관청, 종묘 제사, 수리 건축, 일상 생활, 불교 등 여러 분야와 관련이 있었다.⁷⁾ 王水照는 “唐代 문인의 이와 같은 작품 형식은 일반적으로 ‘物’을 중심으로 하며, 주로 객관적이고 정적인 묘사를 많이 한다. 주요 내용은 건축 시기, 지리적 위치, 자연 경관 등 사실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며, 가끔은 議論을 첨가하였고, 사실적 묘사가 뛰어나다.”⁸⁾라고 하였다. 이처럼 당대 기체문은 사건 기록을 사실적으로 서술하는 데 강점을 가졌으며, 기록의 실용적 성격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랬던 기체문이 송대에 이르러서는 기체문이 더 넓게 개인적인 시각까

善變, 兼取駢語”

- 4) (明)吳訥著, 于北山·羅根澤校点, 《文章辨体序說》, 于北山·羅根澤校点,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62년, 41쪽. “記之名, 始于<戴記><學記>等篇. 記之文, 《文選》弗載. 后之作者, 固以韓退之<畫記>、柳子厚游山諸記爲体之正.”
- 5) (宋)叶适, 《習學記言序目》卷四十九, 皇朝文鑒三, 記. 北京: 中華書局, 1977년, 733쪽.
- 6) (明)吳訥著, 于北山·羅根澤校点, 《文章辨体序說》,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62년, 42쪽. “大抵記者, 盖所以備不忘.”
- 7) (宋)李昉: 《文苑英華》, 北京: 中華書局, 1966년, 第5冊, 卷七百九十七-卷八百三十四, 4216-4402쪽. (宋)姚鉉編, (清)許增校, 《唐文粹》,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86년, 第3冊, 卷七十一-第七十七, 1-152쪽. 참고.
- 8) 王水照, 《宋代文學通論》, 開封: 河南大學出版社, 1997년, 440쪽.

지 반영하게 되었고, 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즉, 송대 기체문은 공적인 기록을 넘어서 사적인 기록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었으며, 문인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문학 장르로 자리 잡았다.

우선, 題材에 있어 송대 기체문은 당대의 주제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도, 개인적인 시각을 추가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李昉의 《文苑英華》와 姚鉉의 《唐文粹》를 바탕으로 당대 기체문의 題材를 ‘刻石類 기체문’과 ‘비각석류 기체문’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돌에 새긴 것들은 營建類記, 壁記, 功德記, 墓記, 題記, 造像記, 經幢記로, 돌에 새기지 않은 것들은 山水類記, 器物類記, 人事雜記로 구분하였다.⁹⁾ 이로 보건대, 돌에 새긴 각석류 기체문은 매우 공개적이며, 문장을 읽는 대상이 되는 수용자, 즉 독자층이 더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대 기체문은 주로 공공의 공간, 즉 공적인 공간에서 사용되었으며, 營建記, 廳壁記, 功德記 등은 대체로 공무에 필요한 문서로 작성되었다.¹⁰⁾ 이를 통해 당대 기체문의 公共性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공공적 시각에서의 기록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분으로 당대 기체문에서 돌에 새긴 각석류 기체문이 주로 공적인 기록을 위한 것이었다면, 비각석류 기체문은 개인적이고 문학적인 성격을 더욱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송대 기체문의 題材는 이와 같은 당대의 기체문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완성되었다. 송대 기체문은 당대의 전통적인 題材인 亭台樓閣記, 書畫記, 廳壁記 등을 계승하면서도,¹¹⁾ 새로운 題材들이 추가되었다. 특히 書齋記, 藏書記와

9) (宋)李昉, 《文苑英華》, 北京: 中華書局, 1966년, 第5冊, 卷七百九十七-卷八百三十四, 4216-4402쪽. (宋)姚鉉編, (清)許增校, 《唐文粹》,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86년, 第三冊, 卷七十一-第七十七, 1-152쪽, 何李: 《唐代記體文研究》, 華東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10년. 참고.

10) (宋)李昉, 《文苑英華》, 北京: 中華書局, 1966년, 第5冊, 卷七百九十七-卷八百三十四, 4216-4402쪽. (宋)姚鉉編, (清)許增校, 《唐文粹》,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86년, 第三冊, 卷七十一-第七十七, 1-152쪽, 참고.

11) 북송 시기의 많은 문인들이 기체문의 여러 제재 중 ‘亭台樓閣記’를 특히 많이 썼다. 익히

같은 개인적인 시각을 반영한 기체문이 송대에서 매우 유행했다. 송대 기체문은 공적인 기록을 넘어서,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매우 사적인 기록으로 영역이 확장되었고, 이로 인해 문학적 자유와 표현의 다양성이 더 풍부해진 것이다.

우선, 송대 기체문에서 공적인 제재의 발전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廳壁記’이다. 송대에는 당대의 廳壁記를 바탕으로 발전한 ‘題名記’라는 기체문이 등장했다. 題名記는 고대 관청에서 역대 직책을 맡았던 관리와 그들의 업적을 기록하는 실용적 문체로, 주로 관청의 벽이나 나무, 돌 등에 새겼다. 송대에서 언급되는 題名記는 官署題名記 뿐만 아니라, 進士登科題名記, 教授題名記, 寺院題名記, 游賞題名記 등도 포함된다. 이들 題名記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기체문이 기록되는 분야가 원래의 관청을 기록한 것에서 더 나아가 진사 등과, 사원, 유람기 등으로 확장되었고, 대부분 공적인 공간에 속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더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송대의 기체문은 여전히 대부분 공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적인 시각에 있어서도 발전이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書齋記’, ‘藏書記’ 등을 많이 창작했다. 歐陽修의 <非非堂記>는 자신이 책을 읽고 휴식하는 곳을 다룬 기념비로, 작가는 ‘非非堂’이라는 이름을 통해 자신의 옹고 그림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송대에는 藏書記도 등장했는데, 蘇軾의 <李氏山房藏書記>와 같은 작품이 이에 속한다. 송대의 藏書記 중 아주 사적인 藏書記에 속하는 문장도 많이 썼는데 대표적으로 劉敞의 <伯父寶書閣記>가 있다. 이는 그의 백부가 집을 짓고 서재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그 유산을 남긴 일을 기록한 기체문이다. 또한 蘇轍의 <藏書室記>도 일정 범위 내에서 사적인 시각으로 작성된 기체문이다. 이러한 송대의 藏書記는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남송에서는 그 전통이 확립되어, 陸游의 <万卷樓記>, 叶适의 <櫟齋藏書記> 등의 작품이 등장했다.

명문으로 알려진 王禹偁의 <黃州新建小竹樓記>, 范仲淹의 <岳陽樓記>, 歐陽修의 <醉翁亭記>, <丰樂亭記>, 蘇軾의 <雪堂記>, <超然台記>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다음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체문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송대 기체문은 ‘개인의 주관적 의식’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당대 기체문에서 문인의 주관적 의식이 이미 일부 드러나고 있었으나, 송대에는 그 의식이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었다. 그 특징이 두드러지는 李德裕의 <懷崧樓記>를 살펴 보자.

元和 庚子에 나는 내정에서 일을 하였고, 동료 아홉 명 중 다섯 명은 재상을 보필하는 이였다.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거의 다 사라졌으며,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은 오직 三川守 李公뿐이다. …… 하물며 나는 근심과 슬픔에 시달리고, 병으로 몸이 쇠약해졌다. 항상 북쪽 늪은 이의 복을 놀라워하며, 어찌 東山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을 수 있을 것인가?¹²⁾

작가는 서두에서 자신의 신분을 언급하며, 동료들의 사망, 노년에 접어든 자신의 병약함, 그리고 복과 화를 알 수 없는 인생의 불확실함에 대한 비애와 걱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과 함께, 삶의 무상함과 인생의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감정은 문장 전반에 걸쳐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과 깊은 성찰을 담아내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이 문장에서 이덕유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깊은 성찰과 개인적인 체험을 담아내고 있다.

이처럼 송대 기체문에서는 이러한 개인적인 주제 의식이 더욱 강조되며, 자신만의 삶과 감정을 기록하는 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표현도 더욱 보편화되었다. 이는 楊慶存이 말한 바와 같이 “송대는 ‘사람’을 중심으로 변화를 이루었으며, 강한 주관적 의식을 작품에 반영하였고, 때로는 자아의 의식을 드러내거나 심리적 상태와 감정을 표현하였다. 고로 사실과 허구가 혼합되고 얽히게 되었다. …… 이로써 ‘物은 나를 위한 도구’가 되고, ‘物에 얽매이지 않는

12) (唐)李德裕撰, 傅璇琮·周建國校箋, 《李德裕文集校箋》別集卷第七, <懷崧樓記>, 北京: 中華書局, 2018년, 658쪽. “元和庚子歲, 予獲在內庭, 同僚九人, 丞弼者五. 數十年間, 零落將盡, 今所存這, 惟三川守李公而已. …… 況余憂傷所侵, 疲爾多病; 常驚北叟之福, 豈忘東山之歸?”

다’는 개념이 이루어졌다.”¹³⁾ 송대의 기체문에서 ‘物爲我用’은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자의 감정과 개인적인 사고를 표현하는 데 더 큰 중점을 둔 것이다.¹⁴⁾

다음으로, 기체문의 형식 면에서 살펴보자면, 송대의 기체문은 당대 기체문보다 더욱 유연하고 자유로워져, ‘형식’보다는 문장에서 보여주려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대 초기의 기체문은 주로 묘사에 집중했고, 후에는 議論과 감정 표현이 점차 더해졌으며, 상징 등의 수사 기법도 사용되었지만, 여전히 일정한 글쓰기 규칙을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송대에 이르러서는 옛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서술, 의론, 감정 표현 등 다양한 기법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주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송대의 기체문 중에서 전통적인 형식에 가장 얽매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蘇軾의 문장이다. 《宋史·列傳第九十七》에서 소식의 문장은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과 흐르는 물처럼, 처음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지만, 항상 갈 길을 따라가고, 멈춰야 할 곳에서는 멈춘다”¹⁵⁾라고 했는데, 소식은 문장을 쓰는 즐거움을 말하길,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즐거운 일이 없었고, 오직 글을 쓰는 것만이 즐거웠다. 그의 마음이 닿는 곳에 필력이 구부러지며, 그 뜻을 다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¹⁶⁾라고 하였다. 이는 蘇軾의 기체문에서 뚜렷하

13) 楊慶存, 《宋代散文研究》,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2년, 194-195쪽.

14)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王禹偁의 <黃州新建小竹樓記>가 있는데, <黃州新建小竹樓記>는 전반적으로 당대의 기체문과 같이 敘事, 寫景, 그리고 마지막에 議論을 더하는 구조를 따르지만, 小竹樓 자체보다는 자신이 그곳에서 겪은 생활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小竹樓를 매개로, 저자는 자신이 유배당한 후의 심경을 드러냈다. 歐陽修의 <相州畫錦堂記>도 畫錦堂을 그리고 있지만, 韓琦의 공로와 덕행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畫錦堂을 짓는 과정이나 비용, 경치 등 정작 건물 묘사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다. 范仲淹의 <岳陽樓記> 역시 岳陽樓를 매개로 자신의 감정과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작품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송대의 기체문에서 議論은 더 강렬하고 표현했으며, 주로 개인의 감정과 사고를 중심으로 작품을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元)脫脫等撰, 《宋史·列傳第九十七》, 卷三百三十八, 10817쪽. “如行云流水, 初无定質, 但常行于所当行, 止于所不可不止.”

게 나타난다. 蘇軾은 당대 기체문에서의 記事紀物의 전통적인 체제 형식을 깨뜨리고, 山水記文에 議論을 썼으며, 그림에 대해 기록하며 그림의 이치를 설명하고, 賦의 형식으로 여행을 기록하는 등 그만의 독특한 기법을 사용했다. 그는 亭臺記도 독특한 형식으로 썼다. 마음이 가는 대로 글을 썼으며, 그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글의 흐름이 유연하고 원만하게 이어지게 썼다. 예컨대, <超然台記>의 서두에서 “모든 사물에는 관찰할 만한 가치가 있다. 관찰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 자체로 즐거움이 된다. 반드시 기이하고 화려한 것일 필요는 없다.”¹⁷⁾라고 하고, “내가 어디로 가더라도 기쁨이 없겠는가?”¹⁸⁾라고 말하며 正과 反의 두 방면에서 자신의 議論을 썼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마음 상태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면서 동시에 내면의 모순과 갈등을 탐구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나는 스스로 錢塘에서 膠西로 옮겨 가게 되었다.”¹⁹⁾라고 하였는데, 소식은 杭州(錢塘)에서 眉州(膠西)로 옮겨간 뒤 생활 환경의 변화를 서술하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유자적하며 즐기고, 낡은 누각을 수리하고, 누각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는 등의 일상을 통해 초연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소식은 경치를 묘사하고, 사물을 설명하며, 감정을 표현하고, 사건을 서술하고, 이론을 설명하는 등 여러 요소를 하나로 융합하여 글을 썼다. 그는 단순히 기체문으로 사건이나 사물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글을 통해 초연한 뜻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매우 웅장하고 아름다운 글”²⁰⁾, “극도로 여유롭고 담담한 의미”²¹⁾로 써냈다. 이 <超然台記>은

16) (宋)何薳撰, 張明華點校, 《春渚紀聞》卷第六, 東坡事實, <文章快意>, 北京: 中華書局, 1983년, 84쪽. “某平生无快意事, 惟作文章, 意之所到, 則筆力曲折, 无不盡意.”

17) (宋)蘇軾撰, (明)茅維編, 孔凡禮點校, 《蘇軾文集》卷十一, <超然台記>, 351쪽. “凡物皆有可觀, 苟有可觀, 皆有可樂, 非必怪奇瑰麗者也.”

18) (宋)蘇軾撰, (明)茅維編, 孔凡禮點校, 《蘇軾文集》卷十一, <超然台記>, 351쪽. “吾安往而不樂”

19) (宋)蘇軾撰, (明)茅維編, 孔凡禮點校, 《蘇軾文集》卷十一, <超然台記>, 351쪽. “余自錢塘移守膠西”

20) (清)沈德潛, 《增評唐宋八家文讀本》, 蘇軾 卷二十三, <超然台記>, 武漢: 崇文書局, 2010년, 543쪽. “極偉麗之文”

21) (清)沈德潛, 《增評唐宋八家文讀本》, 蘇軾 卷二十三, <超然台記>, 武漢: 崇文書局, 2010년,

문학적 감동과 표현력이 매우 강한 문장으로 꼽히는 작품이 되었고, 叶适은 이를 “자유롭고 사방으로 넓게 퍼져 나가며, 그 칼날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다. 또한 고리와 끈으로 묶을 수 없는 것처럼 형식이 고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며, 구양수나 증공은 이를 따를 수 없다”²²⁾고 평가했다.

苏轼 외에도 북송의 다른 문인들의 기체문 또한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欧阳修의 <豐樂亭> 역시 경치 묘사, 서사, 의론, 감정을 하나로 융합한 기체문으로, 陈衍은 이를 “永叔의 문장은 序, 跋, 雜記에서 가장 뛰어나고, 雜記중에서도 <豐樂亭>은 가장 완벽하다”²³⁾고 평했다. 구양수는 <豐樂亭>의 전편에 걸쳐 경치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그 사이에 議論을 넣어 관직과 세속에 대한 염증을 표현하였고, 은둔 생활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었다. 또한, 曾巩이 齊州 知州에 역임할 때 쓴 <齊州二堂記>는 기체문에 고증을 적용했다. 이 문장에서 증공은 泺水 위에 새로 건설된 두 개의 堂의 명칭을 정하기 위해, 歷山과 泺水에 대해 자세히 고증하였으며, 고증 과정에서는 실제 지리를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비록 고증을 다룬 글이지만, 전개가 자연스럽게 전혀 지루하지 않으며, 간결하고 명확하게 서술하였다. 이 문장을 통해 송대 사람들이 기체문을 쓸 때 형식적인 방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전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고, 전통적인 주제로 제한을 두지도 않았다. 钱穆는 “송대 사람들은 정자나 서재를 기록할 때, 대개 그 여백에 감정을 담아내려 했고, 주제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여전히 시를 문장에 녹여 넣으려는 뜻이 남아 있지만, 송대 사람들은 자신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했다.”²⁴⁾라고 하였다. 이처럼 송대 사람들은 기체문을 쓸 때, 내용에 적합한 형식을 탐구하는 데 주력하였고, 그 형식은 유연하고 자유로워 주로

543쪽. “极閑淡之意”

22) (宋)叶适, 《習學記言序目》卷四十九, 皇朝文鑒三, 記, 北京: 中華書局, 1977년, 733쪽. “奔放四出, 其鋒不可當, 又關鈕繩約之不能齊, 而歐、曾不逮也.”

23) 洪本健, 《歐陽修資料匯編》四, 清代 <陳衍>, 北京: 中華書局, 1995년, 1311쪽. “永叔文以序跋雜記爲最長, 雜記尤以《豐樂亭》爲最完美.”

24) 錢穆, 《中國學術思想史論叢(四)》, <雜論唐代古文運動>,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19년, 54쪽.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송대의 기체문 창작은 당대의 공적인 시각에서 기록적 성격의 작문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발전하였으며,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문장으로 발전하였다. 다시 말해, 송대 사람들에게 있어 기체문은 당대에 주로 사건이나 사물을 기록하는 문체에서 자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사상을 드러내는 문체 중 하나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철의 기체문 창작은 바로 이러한 시대의 ‘기체문’ 개념 속에서 이루어졌다.

소철의 기체문 창작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宋 神宗 熙寧 2년(1069)부터 元豐 8년(1085)이다. 소철은 制置三司條例司에서 나와서 河南府 留守推官으로 임명되었는데, 실제로 그 자리에 가지는 않았고, 이후 陳州로 가 陳州 教授를 역임했다. 元豐 8년(1085)에는 조정으로 돌아와 秘書省 校書郎을 맡았다. 이 10여 년 동안 소철은 지방에서 관직을 수행했으며, 이 시기에 소철은 총 17편의 기체문을 썼다. 그 중 첫 번째 기체문인 <京西北路轉運使題名記>는 熙寧 6년(1073)에 썼다. 이 시기 소철의 기체문은 다음과 같다.

	편명	작문시기	당시 소철 신분
1	<京西北路轉運使題名記>	熙寧6년(1073)	齊州掌書記
2	<洛陽李氏園池詩記>	熙寧7년(1074)	齊州掌書記
3	<齊州閔子祠堂記>	熙寧8년(1075)	齊州掌書記
4	<齊州涿源石橋記>	熙寧8년(1080)	齊州掌書記
5	<王氏清虛堂記>	熙寧10년(1077)	簽書應天府判官
6	<東軒記>	元豐3년(1080)	筠州鹽酒稅
7	<廬山栖賢寺新修僧堂記>	元豐4년(1081)	筠州鹽酒稅
8	<筠州聖壽院法堂記>	元豐4년(1081)	筠州鹽酒稅
9	<吳氏浩然堂記>	元豐4년(1081)	筠州鹽酒稅
10	<筠州聖祖殿記>	元豐4년(1081)	筠州鹽酒稅
11	<黃州師中庵記>	元豐4년(1081)	筠州鹽酒稅
12	<太子少保趙公詩石記>	元豐4년(1081)	筠州鹽酒稅
13	<上高縣學記>	元豐5년(1082)	筠州鹽酒稅

14	〈武昌九曲亭記〉	元豐5년(1082)	筠州鹽酒稅
15	〈光州開元寺重修大殿記〉	元豐6년(1083)	筠州鹽酒稅
16	〈黃州快哉亭記〉	元豐6년(1083)	筠州鹽酒稅
17	〈南康直節堂記〉	元豐8년(1083)	歙州績溪縣令

제목에 통해 알 수 있듯, 이 시기 동안의 소철의 기체문은 대부분 공무에 필요한 공적이고도 직무와 관련된 문장이었다. 소철이 쓴 기체문 중에筠州에서 재임한 동안만 해도 이러한 공적인 문장이 11편에 달한다.

두 번째 시기는 紹聖 원년(1094)부터 崇寧 2년(1103)까지로, 다시 폄적당하여 지방에서 관직을 역임했던 기간이다. 宋 哲宗의 紹聖 원년(1094), 소철은 철종이 熙寧 新法을 복원하고자 하는 것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고, 결국 汝州 知州로 폄적을 당했다. 몇 달 뒤 左朝議大夫로 또다시 폄적 당하였고, 袁州 知州로 폄적 당하여 袁州로 가게 되었으나, 도착하기도 전인 7월에 또다시 左朝議大夫 試少府監로 폄적당하여 筠州로 거처지를 옮겼다. 소철은 汝州에서 좋은 정치를 펼쳐 명성을 얻었는데, 그가 汝州를 떠날 때,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하며 울며 흐느껴서, 그 소리가 수십 리에 걸쳐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 시기에 소철은 〈汝州龍興寺修吳畫殿記〉와 〈汝州楊文公詩石記〉 두 편의 기체문을 썼으며, 이 두 편의 글도 임기 중에 공무로 작성한 문장이었다.

세 번째 시기는 崇寧 3년(1104)부터 政和 2년(1112)까지로, 이 시기 소철은 潁川에서 비교적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는 元祐 년간에 남은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며 ‘遺老齋’라는 방을 지었고, 스스로를 ‘潁濱遺老’라 칭했다. 그는 손님을 거절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참선하고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며, 時事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소철은 〈遺老齋記〉, 〈藏書室記〉, 〈待月軒記〉, 〈墳院記〉 등 4편의 기체문을 썼다. 이 네 편은 주제나 내용이 이전의 기체문과 달랐다.

현전하는 蘇轍의 기체문 문장은 주로 위 세 시기에 집중해서 썼고, 이외 다른 시기에는 일체 기체문을 쓰지 않았는데, 이는 여타 문인들과 다른 소철만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歐陽修는 폄적당하여 滁州에 있는 동안 그 유명한

〈醉翁亭記〉를 썼고, 중앙 관직에 재직하는 중에도 여러 기체문을 썼다. 宋仁宗 嘉祐 2년(1057) 구양수가 知貢舉를 맡은지 5-6년쯤 되었을 때, 구양수의 직책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고, 이 시기 그는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이는 그가 쓴 〈浮槎山水記〉, 〈有美堂記〉등의 기체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주로 산수의 즐거움과 부귀의 즐거움을 논하며, 산수의 경치를 즐기면서 동시에 도시의 즐거움을 함께 즐길 수 없음을 썼다. 또 다른 예로, 소식은 기체문을 62편을 남겼다. 소식 또한 소철과 달리 기체문 62편의 창작 시기가 분산되어 있다. 〈四菩薩閣記〉는 아버지의 장례를 끝낸 후 다시 경사로 돌아가기 전에 썼고, 〈淨因院畫記〉와 〈熙寧手詔記〉는 元祐 3년(1088), 京師에서 翰林學士와 知制誥 재직시절에 썼고, 元祐8년(1093), 禮部尙書, 端明殿學士 겸 翰林侍讀學士를 역임하던 시절에 〈法云寺禮拜石記〉, 〈北海十二石記〉 등을 썼다. 이로 보건대, 동시대 다른 문인들의 기체문은 창작 시기가 어느 특정한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자유롭게 썼고, 대개 감정이나 사건에 따라 즉석에서 썼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송대의 여타 다른 문인들의 기체문 창작 시기나 문장의 내용의 특징과는 다르게, 소철은 기체문의 창작에 있어서 공적인 글을 쓴 시기와는 구분을 지었다던가,²⁵⁾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대 기체문 창작의 시대적 배경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기체문에서는 사적인 감정을 더 담아내고자 하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소철은 중앙 관직에 재직할 때는 주로 策論과 奏議文 등의 공적인 문장을 썼고, 기체문 창작은 거의 하지

25) 이는 소철의 전체 문장을 문체별로 나누어서 시기 구분을 지어보면, 소철이 기체문에 사적인 감정을 더 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송대 산문을 문체별로 나누어 보면, 기체문 자체가 다른 문체들에 비해 ‘사적인’ 글을 쓰기에 적합한 문체인데, 다른 문인들은 눈에 띄게 사적인 영역의 글쓰기를 한 반면, 소철은 기체문마저도 사적인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사실, 다른 문인의 기체문과 소철의 기체문을 비교하면 사적인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소철의 전체 문장을 놓고 볼 때, 소철이 쓴 다른 문체들과는 달리 비교적 기체문에서 사적인 감정을 일부 드러내었다. 소철의 문장 중에서 기체문과 더불어 기체문 외에 사적인 감정을 드러낸 문체가 있는데, 바로 墓誌銘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차후 연구에서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않았다. 그러나 그는 폄적을 당해 지방에서 관직을 역임하는 동안에는 동료들과 친구들이 소철에게 기체문을 써달라고 부탁했으며, 이는 직무상 이유도 포함하여 개인적인 인간 관계 등 다양한 이유가 엮여 있었기 때문에 공적이면서도 사적인 감정을 담은 기체문을 썼다. 이러한 연유로 소철의 지방관직 역임시기 썼던 기체문은 사적인 감정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공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며, 이는 그의 기체문이 지방 관직 역임 기간에 집중되어 창작된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와는 달리 세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퇴임하여 潁川에 머무르는 시기에 썼던 기체문에서는 앞 전 두 시기와는 달리 더 확연하게 개인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²⁶⁾

3. 공공성의 계승 - 공적인 영역에서의 기체문 창작

소철이 지방에서 관직을 역임하던 시절 썼던 기체문은 문학 창작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공적인 문장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세 시기 중 전 두 시기의 기체문 대부분 비교적 객관적이고도 공적인 장소에 대해서 쓴 것이었기에 공적인 글쓰기였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그 시절 썼던 기체문은 모두 타인의 청탁을 받아서 쓴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적인 감정을 자제하여 썼다. 이 시기에 썼던 <京西北路轉運使題名記>는 西北路 轉運使 陳知儉의 부탁으로 쓴 題名記이다. 소철은 이 문장을 쓴 목적을 “명칭을 돌에 새겨 후세에 전하려 하였으나, 선인들의 흔적은 이미 사라져서

26) 물론 이 시기는 퇴임을 했으니 공적인 글쓰기와 관련이 없는 시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기에 소철은 기체문 뿐만 아니라 공적인 요소가 다분한 史論도 남겼다. 그리고 이 시기에 소철이 썼던 <遺老齋記>, <藏書室記>, <待月軒記>, <墳院記>와 같은 ‘書齋記’, ‘藏書記’는 여타 다른 송대 문인들은 퇴임 이후가 아니라 퇴임 전에도 썼던 체재였다. 퇴임을 한 시기여서 관직을 역임하고 있지 않은 것이 직접적으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 시기에 소철은 기체문 뿐만 아니라 史論도 여러 편 남겼는데, 그 史論들은 공적인 성격이 다분한 문장이었다.

기록되지 않았기에, 나는 옛 기록을 참고하여 잃어버린 흔적을 찾으려 한다.”고 하였다.²⁷⁾ 이 <京西北路轉運使題名記>는 돌에 새겨져 후세에 전파되어 보존될 수 있도록 하였고, 京西北路 轉運使司에서 썼으니, 당연히 공적인 시각에서 쓰일 수 밖에 없었다.

또 <洛陽李氏園池詩記>에서는 “시를 돌에 새기려 한다. 그의 아들 遵度는 제남에서 관직을 맡고 있으며, 실제로 나와 함께 유람을 다녔다. 그는 제후의 명을 받아 (나에게) 글을 요청하여 기록을 남기려 한다.”²⁸⁾고 하였는데, 이 문장은 소철이 齊州의 掌書記로 있을 때 현지 동료였던 兵馬都監 李昭叙의 요청으로 洛陽 李氏의 園池를 위해 지은 것으로, 洛陽 李氏의 園池에서 썼으며, 이 문장 또한 돌에 새겼다.

<光州開元寺重修大殿記>에서 이르길, “밝음은 백성의 기쁨을 함께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공에게 고하고, 그 일을 기록하여 돌에 새기기를 청하였다.”²⁹⁾고 하였는데, 元豐 6년(1083)에 光州守 曹九章의 청으로 開元寺를 중수하기 위해 지었고, 광주 개원사에서 썼다. 또한 <汝州楊文公詩石記>도, “그때 정자는 이미 매우 낡았고, 시를 새긴 돌은 흩어져 있었으며, 사라진 것이 절반 이상이었다. 공(유양)은 시를 모아 새겨 놓았고, 그 후에는 훌륭한 인물들을 기리기 위해 두 벽에 각인된 돌을 추가로 세웠다.”³⁰⁾고 하며, 楊億의 시를 새긴 돌을 위해 쓴 글이었는데, 이 문장의 내용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문장이었기에 공적인 시각에서 쓴 것이었다. 위에서 예시로 든 기체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지방관 역임 시기 동안 작성되었으며 공적이면서도 아주 개방적인 공간에서 작성되었으며 대부분 돌에 새겨졌다.

27) (宋)蘇轍著, 曾棗庄·馬德富點校, 《樂城集》卷二十三, <京西北路轉運使題名記>, 500쪽. “將刻詩于石. 其子遵度官于濟南, 實從予游. 以侯命求文以記.”

28) (宋)蘇轍著, 曾棗庄·馬德富點校, 《樂城集》卷二十四, <洛陽李氏園池詩記>, 516쪽. “將刻詩于石. 其子遵度官于濟南, 實從予游. 以侯命求文以記.”

29) (宋)蘇轍著, 曾棗庄·馬德富點校, 《樂城集》卷二十三, <光州開元寺重修大殿記>, 502-503쪽. “明偕知民之悅, 故以告于公, 請記其事而刻諸石.”

30) (宋)蘇轍著, 曾棗庄·馬德富點校, 《樂城後集》卷二十一, <汝州楊文公詩石記>, 1398쪽. “時亭弊已甚, 詩石散落, 亡者過半. 取公汝陽編詩而刻之, 乃增廣思賢, 龕石于左右壁.”

기체문을 돌에 새긴 것 역시 기체문의 기능적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옛 사람들은 메모를 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 글을 썼기 때문에 오랫동안 전해지게 하기 위해 돌에 많이 새겼다. 문장을 지어 돌에 새긴 것은, 기체문이 형성되던 초기에 매우 보편적인 특징이었는데, 때로는 문장과 비석을 같은 것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姚鼐가 《古文辭類纂》에서 이르길, “雜記類 또한 碑文에 속한다. 碑는 주로 공을 노래하고 덕을 기리는 것인데, 記는 기록하는 사건의 크고 작음이 다르고, 그 의미를 취하는 방식도 각각 다르다.”³¹⁾고 하였다. 이처럼 기체문을 돌에 새긴 것은, 공덕을 기리기 위해 썼던 비문과는 달리 크고 작은 일 모두 기록을 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훨씬 광범위하다.

위에서 언급한 앞선 두 시기 돌에 새긴 소철의 기체문 역시 비교적 공개성이 강하고, 독자층이 더 광범위하며, 동시에 전파 및 보존의 목적이 있었으며, 이것을 둔 공간이 공공 장소였기에 공적인 요소가 다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철의 앞 두 시기의 기체문 창작은, 내용적에서 살펴보면 記事紀物 위주이다. 예를 들어, <齊州閔子祠堂記>는 閔子の 祠堂의 중수 과정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이를 통해 閔子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歷城의 동쪽 5리쯤에 묘가 있는데, 이는 閔子の 묘라 한다. 묘는 있으나 사당은 없고, 제사도 제대로 지내지 않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이 안 녕하지 못하였다. 지방의 관리들 중 일부는 이를 개선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희녕 7년, 天章閣待制右諫議大夫인 濮陽 李公이 제남을 맡게 되었다. 그 이듬해, 정치를 수습하고 일을 처리하면서, 이 지역의 노인들이 와서 말하였다. ‘이 지역에 있는 민자처럼 사당도 없고 제사도 제대로 지내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은 큰 결점이 아닙니까? 공이 이를 모르시겠습니까? 만약 알았다면 이를 바로잡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자 李公이 말하였다. ‘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축공사를 하여

31) (清)姚鼐著, 蔣立甫·吳孟夏主編, 《古文辭類纂評注》姚鼐原序, 13쪽. “雜記類者, 亦碑文之屬. 碑主于歌功頌德, 記則所紀大小事殊, 取義各異.”

사당을 지었고, 또한 봄과 가을에 정기적인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사당이 완성되자, 세 번의 제사를 거행하며, 제기와 도구가 정렬되고, 제사 담당자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백 년 동안의 폐습이 하루 아침에 바로잡혔다.”³²⁾

이 문장의 첫 부분에서는 李公이 閔子의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 일을 서술했다. 먼저, 歷城의 동쪽에는 공자의 제자인 閔子의 묘가 있지만, 단지 ‘丘’일 뿐 아직 봉분도 사당도 없고 제사도 지내지 않아 백성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齊州刺史 李肅之가 지방 원로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 일을 서술했다. 그리고 <齊州涿源石橋記>에서는 李肅之가 돌다리를 건설하여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준 일을 서술했다.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太守 李公은 성 위에 올라 공사의 상태와 그 작업의 질, 그리고 작업자들의 수고와 여유를 살펴보며, 서로 격려하였다.”³³⁾라고 하며 이 숙지가 돌다리를 축조하는 중에 모든 것을 감찰하고 친히 다 살폈음을 썼고, 마지막에는 다리를 축조한 이유를 서술했는데, “李公의 정치적 경험이 없고, 사건 처리에 대한 민첩함이 부족했다면, 다리는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비록 다리를 축조하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두 배로 늘어났을 것이다. 이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³⁴⁾라고 하며 이숙지의 치적도 기록하고 찬양했다.

<筠州聖壽院法堂記>는 蘇轍이筠州로 폄적된 후, 법당을 지은 것을 기념하

32) (宋)蘇轍著, 曾棗莊·馬德富點校,《欒城集》卷二十三,〈齊州閔子祠堂記〉, 497쪽. “歷城之東五里有丘焉, 曰閔子之墓. 墳而不廟, 秩祀不至, 邦人不寧, 守土之吏有將舉焉而不克者. 熙寧七年天章閣待制右諫議大夫濮陽李公來守濟南, 越明年政修事治, 邦之耆老相與來告曰: “此邦之旧, 有如閔子而不廟食, 豈不大闕? 公唯不知, 苟知之其有不飭?” 公曰: “噫, 信其可以緩?” 于是庀工爲祠堂, 且使春秋修其常事. 堂成, 具三獻焉, 筮豆有列, 僕相有位, 百年之廢一日而舉.”

33) (宋)蘇轍著, 曾棗莊·馬德富點校,《欒城集》卷二十三,〈齊州涿源石橋記〉, 501쪽. “方其未成也, 太守李公日至于城上, 視其工之良窳與其役之勞佚, 而勸相之.”

34) (宋)蘇轍著, 曾棗莊·馬德富點校,《欒城集》卷二十三,〈齊州涿源石橋記〉, 501쪽. “非李公之老于爲政, 與二君之敏于臨事, 橋將不就. 夫橋之役雖小, 然其勞且難成于旧則倍, 不可不記也.”

기 위해 쓴 것이다. “高安郡은 본래 豫章 지역에 속하는 읍으로, 계곡과 산 사이에 있다. …… 그러나 그 지역은 지형이 험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시의 학자나 인물들이 그곳에 이르지 못했다.”³⁵⁾ 라고 하며 소철이 편적되어 고안군으로 내려온 환경의 어려움을 묘사하였다. “이미 도달하였으니, 그 지역의 풍속이 온화하고, 음식이 좋으며, 배불리 먹고 편안히 살게 되니, 갑자기 위험하고 먼 곳에서 오는 문제가 무엇인지 잊고 있었다.”³⁶⁾라고 하며 비록 좌천되었지만, 소철은 낙관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했다.筠州는 외진 곳에 있었는데 蘇轍은 자주 聖壽院을 찾아가 그곳의 선사들과 밀접하게 교류하였다. 이 문장은 蘇轍이 선사의 부탁을 받아 그곳에 법당을 지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쓴 글이다. 그리고 <筠州聖祖殿記>는 元豐 4년(1081)筠州의 聖祖殿을 중수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쓴 글이다.筠州의 聖祖殿은 8월과 9월에 걸쳐 수리하였고, 蘇轍은 서두에서 周의 제도와 唐의 예를 지키는 중요성을 설명하며, 그것이 사회의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筠州의 “근처는 멀지 않다. 관리와 백성은 소박하고 미숙하며, 시골은 예의를 알지 못한다.”³⁷⁾ 그래서 더욱 聖祖殿이 필요했던 것이다. 聖祖殿 건물의 재료도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그 궁의 동쪽에 틈이 있는 땅을 얻어, 남북으로 열두 개의 筵, 동서로 아홉 개의 筵을 만들고, 나무는 아홉 봉우리와 소요산에서 벌목하였다.”³⁸⁾ 라고 하였다. 그리고 <汝州龍興寺修吳畫殿記>는 소철이 汝州로 좌천되었을 때 그림 벽을 중수한 것을 지원한 일을 기록한 것인데, 이 문장과 관련하여 蘇軾이 지은 시가 있다. 바로 <子由新修汝州龍興寺吳畫壁>이다. <子由新修汝州龍興寺吳畫壁>에서 이르길, “옛 사람을 추모하며 그가 있었다

35) (宋)蘇轍著, 曾棗庄·馬德富点校,《欒城集》卷二十三, <筠州聖壽院法堂記>, 503쪽. “高安郡本豫章之屬邑,居溪山之間,……然以其險且遠也,士之行乎當時者不至于其間.”

36) (宋)蘇轍著, 曾棗庄·馬德富点校,《欒城集》卷二十三, <筠州聖壽院法堂記>, 503쪽. “既至,幸其風氣之和,飲食之良,飽食而安居,忽焉不知險遠之爲患.”

37) (宋)蘇轍著, 曾棗庄·馬德富点校,《欒城集》卷二十三, <筠州聖祖殿記>, 495쪽. “維近匪遠;吏民朴陋,野不達禮”

38) (宋)蘇轍著, 曾棗庄·馬德富点校,《欒城集》卷二十三, <筠州聖祖殿記>, 496쪽. “度其宮之東得隙土,南北十有二筵,東西九筵,伐木于九峰、逍遙之山”

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름을 잠시 東坡의 동생이라고 기록해둔다.”³⁹⁾ 라고 하였다. 그리고 <光州開元寺重修大殿記> 또한 개원사를 중수한 이유 및 과정을 서술한 공적인 문장이다. 위에서 살펴본 문장들을 통해, 소철의 앞 두 시기 기체문 창작은 주로 공적인 영역에서의 사건 기록과 사물을 기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기에서 문장의 창작의 배경과 내용 측면에서 蘇轍의 기체문 창작은 주로 공적인 영역에서의 記事紀物에 집중하였으며, 이는 종래의 기체문의 전통적인 특징을 계승하는 동시에, 기체문의 공적인 창작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할 수 있다.

4. 자아찾기 - 사적인 영역에서의 기체문 창작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소철은 嘉祐 2년(1057)에 進士에 급제하였고, 嘉祐 6년(1061)에 制科, 殿試를 치른 후 試秘書省校書郎, 商州軍事推官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때부터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평생 조정의 정치형세에 따라 생활 환경이 변화무쌍하였다. 소철이 처음으로 좌천당하여 지방관직에 역임한 시기는 ‘烏台詩案’에 연루되어 폄적된 시기였다. 筠州에서 슬럼프를 겪은 후 다시 元祐 년간에 조정으로 불러 가 부재상으로 임명되어 遼로 使行을 떠났었다. 철종이 親政을 시작한 후, 소철은 또 다시 폄적당했는데, 휘종 시기에 이르러서야 소철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潁川에서 편안하고 한적하게 삶을 보냈다. 오르락내리락한 관직의 길은 소철의 인생에 있어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경험을 더욱 풍부하고 인생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해주었으며, 동시에 관직에 대한 그의 관념과 사고에도 영향을 주었다.

元祐 6년(1091) 소철이 尙書右丞에 재임하던 시절에, 형 소식에게 보낸

39) (宋)蘇軾著, (清)王文誥輯注, 孔凡禮點校, 《蘇軾詩集》卷三十七, <子由新修汝州龍興寺吳畫壁>, 2027쪽. “他年弔古知有人,姓名聊記東坡弟”

<次韻子瞻感旧>에서 이르길, “正三伏에 돌아와 다시 未央으로 나아갔다. 오랫동안 강과 바다를 떠돌아다니며, 이 칼과 허리띠가 길어 괴로웠다. …… 어린 시절부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고, 나이가 들어서도 결코 잊지 않았다. 淵明은 오래도록 벼슬을 하지 않았고, 黔婁는 충분히 편안했다. 집에는 두 경의 밭이 있었고, 해마다 열 명의 식량을 마련했다. 자식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옛 문장을 정리하게 했다. 열심히 소나무와 대나무를 기르고, 풍파와 서리의 피해를 피하도록 했다. 항상 앞서서 채찍을 맞고, 혼자서 마을 제사 음식을 맛보는 것을 두려워했다. 급히 군의 은혜를 전할 때, 마음이 합쳐지면 물러난다.”⁴⁰⁾고 하였는데, 소철이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삶에 있어서 바란 점이 바로 고향에 돌아가 몸소 경작하고, 소나무를 기르고 대나무를 심고, 여러 제자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옛 글을 정리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다.”⁴¹⁾에서 알 수 있듯, 소철이 아주 어릴 때부터 세웠던 바람과 이상이였다. “오랫동안 강과 바다를 떠돌아다니며, 이 칼과 허리띠가 길어 괴로웠다.”⁴²⁾ 이 한마디도 소철이 이때 이미 관직에 오른 괴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한적한 초야로 돌아가고 싶은 이 소망은 결국 소철이 만년에 영천으로 갔을 때 비로소 실현되었다. 비록 소철은 이때도 국가 정사에 관심을 갖는 것을 잊지 않았고 문학 작품에서도 사회 현황에 관심을 가지며 정견을 표현하고 감회를 토로했지만 전체적인 생활 상태는 “한 방에 물러나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 접촉하지 않는다.”⁴³⁾, 즉 杜門不出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펴적을

40) (宋)蘇轍著, 曾棗庄·馬德富點校,《欒城後集》卷一, <次韻子瞻感旧>, 1097쪽. “還朝正三伏, 一再趨未央. 久從江海游, 苦此劍佩長. ……早歲發歸念, 老來未嘗忘. 淵明不久仕, 黔婁足爲康. 家有二頃田, 歲辦十口糧. 教敎諸子弟, 編排旧文章. 辛勤養松竹, 遲莫多風霜. 常恐先著鞭, 獨引社酒嘗. 火急報君恩, 會合心則降.”

41) (宋)蘇轍著, 曾棗庄·馬德富點校,《欒城後集》卷一, <次韻子瞻感旧>, 1097쪽. “早歲發歸念”

42) (宋)蘇轍著, 曾棗庄·馬德富點校,《欒城後集》卷一, <次韻子瞻感旧>, 1097쪽. “久從江海游, 苦此劍佩長”

43) (宋)蘇轍著, 曾棗庄·馬德富點校,《欒城第三集》卷十, <遺老齋記>, 1565쪽. “退居一室之

당했던 시기부터 마지막에 두문분출하고 潁川에서 지낸 시기까지, 外物과 접촉하지 않고 소철의 전반적인 생활 상태가 자유를 찾고, 점차 내성적으로 변한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이 시기에 소철의 기체문 창작은 비교적 뚜렷하게 사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표현되었다.

첫째, 潁川에 거주하게 된 뒤, 앞의 두 시기의 기체문에 썼던 공적인 공간과 달리 이 시기 소철의 기체문 창작은 自我가 지배하는 사적인 공간을 위주로 하게 되었다. <遺老齋記>에서 이르길, “그러고는 서로 상의하여 집을 짓기로 하였고, 5년 만에 완성되었다. 그 남쪽에는 대나무와 고목을 심어 두었고, 고요하고 소박하여 마치 시골 사람의 집처럼 보였다. 그런 후 사방에 창을 열고, 맑은 창문과 곡선 난간을 달아 작은 은거지로 만들었다. 은거지가 완성되자, 이름을 지을 방법을 찾던 중,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潁濱의 遺老’이다. ‘遺老’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어떠한가?”⁴⁴⁾라고 하였다. 소철이 潁川으로 돌아온 후 그가 거처하는 방을 ‘遺老齋’라고 명명하였는데, <遺老齋記>는 바로 자신의 거처지를 기록한 문장이다. 또 <藏書室記>에서 이르길, “선친의 유언은 지금도 내 귀에 들리는 듯하고, 선친의 유서는 상자에 보관되어 있다. 이제 그것을 다시 자손에게 물려줄 것이다. 그중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문의 미래가 변창할 수 있을 것 같구나!”⁴⁵⁾라고 하였는데, 이 문장은 부친의 유지를 이어받아 부친의 유언과 유서를 후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待月軒記>에서 이르기를, “여기 집을 짓고, 동남쪽에 작은 난간을 마련했다. 난간 앞은 넓고 장애물이 없어, 거의 하늘과 맞닿을 정도였다. 매월 보름날이면 문을 열어 달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달이 내 난간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난간 위에 앉아 그것을 따

間, 杜門却掃, 不與物接.”

44) (宋)蘇轍著, 曾棗莊·馬德富點校, 《欒城第三集》卷十, <遺老齋記>, 1564쪽. “則相與卜筑, 五年而有成. 其南修竹古柏, 蕭然如野人之家. 乃辟其四楹, 加明窗曲檻, 爲燕居之齋. 齋成, 求所以名之, 予曰: ‘予潁濱遺老也, 盍以‘遺老’名之!’”

45) (宋)蘇轍著, 曾棗莊·馬德富點校, 《欒城第三集》卷十, <藏書室記>, 1565쪽. “先君之遺言今猶在耳, 其遺書在篋, 將以遺諸子, 有能受而行之, 吾世其庶矣乎!”

라 돌아다니며 떠나지 않았다.”⁴⁶⁾라고 하였는데, 이 문장은 자신의 집에 작은 난간을 지은 것을 쓴 글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장들을 통해 소철의 이 시기 기체문의 창작 공간은 이미 완전히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공간은 모두 자신의 거처, 서재, 작은 난간 등으로, 기체문이 쓰여진 공간이 명확하게 自我가 지배하는 사적 영역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소철의 이 시기 기체문의 창작 내용은 그 전 두 시기보다 自我를 서술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遺老齋記>에 제일 끝부분에서 말하길, “지금 나는 한 방에 은거하며, 문을 닫고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있다. 마음이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일은 한 번도 하지 않은 적이 없고, 마음이 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내 행동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평생 추구한 즐거움이며,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은 없었다. 너희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도를 배우며 과욕을 피하려면, 나처럼 오늘날의 이 늙은이의 은거지에서의 삶을 본받으면 좋겠다.”⁴⁷⁾ 라고 하였는데, 이 단락에서 소철 자신이 만년에 潁川에서 생활할 때의 마음을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비록 사물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물에 피곤해하지 않고 스스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藏書室記>의 첫 부분에서 말하길, “나는 어렸을 때 선친에게 배웠으며, 선친의 말을 듣고 행실을 살펴보았다. 지금 나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선친이 남긴 몇 가지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 선친은 평소 생업을 돌보지 않았고, 발 한 곳만 있었으며 의식주에 어려움이 없었다. 선친께서는 수천 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고, 손수 그것들을 모으고 교정하여 자손에게 물려주었다. 선친께서 말하기

46) (宋)蘇轍著, 曾棗庄·馬德富点校, 《欒城第三集》卷十, <待月軒記>, 1567쪽. “筑室于斯, 辟其東南爲小軒. 軒之前廓然无障, 几与天際. 每月之望, 開戶以須月之至. 月入吾軒, 則吾坐于軒上, 与之徘徊而不去.”

47) (宋)蘇轍著, 曾棗庄·馬德富点校, 《欒城第三集》卷十, <遺老齋記>, 1565쪽. “今予退居一室之間, 杜門却掃, 不与物接. 心之所可, 未嘗不行. 心所不可, 未嘗不止. 行止未嘗少不如意, 則予平生之樂, 未有善于今日者也. 汝曹志之, 學道而求寡過, 如予今日之處遺老齋可也.”

를, ‘이 책을 읽어라. 안으로는 몸을 다스리고, 밖으로는 사람을 다스리면 충분하다. 이것이 공자의 遺法이다.’ 선친의 유언은 지금도 내 귀에 들리는 듯하다.”⁴⁸⁾ 라고 하였는데, 이 문장은 처음부터 아버지 蘇洵의 유서와 유지로 서술을 시작했고, 뒷부분에서는 孔孟의 말씀과 결합하여 독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했다. 그리고 <墳院記>에서 이르길, “우리 형제는 어렸으나 관직에 나아갔고, 또한 운이 따라주지 않아 고난을 겪었다. 나이가 거의 50이 되었을 때 비로소 조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형은 성격이 강직하여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한 번 관직에 들어갔다 다시 나갔다. 나는 아무런 특별한 능력도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았는데, 5년이 지나고 尙書右丞에 올랐다. 나는 국가의 정사를 듣고,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묘지 옆에 절을 세워 승려들에게 공양을 하며 조상의 복을 기원했다.”⁴⁹⁾라고 하며, 위에서 살펴봤던 문장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장 역시 자신의 일생을 거슬러 올라가 설명하는 단락이 있다. 이러한 기체문은 비록 기체문이라고 하지만, 기존의 다른 기체문들과 마찬가지로 記事紀物의 성격도 있기는 하지만, 앞 두 시기의 단순한 記事紀物과 다르며, 문장으로 풀어낸 방식이 주로 自我로 전환되며, 일종의 내성적이고 自我에 치우친 서술방식이다.

이처럼 소철의 앞 두 시기와 마지막 시기의 기체문의 성격이 확연하게 다르다. 공적인 공간을 위주로 하는, 앞 두 시기 기체문은 ‘記事紀物’인데, 즉, 사건을 기록하고 사물을 기록한 것으로부터 마지막 세 번째 시기에 自我가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의 ‘自我言說’, 즉 자기 자신에 대해 서술한 것까지, 점차 내면에서 평온을 찾고, 감정을 더욱 풍부하고도 섬세하게 표현하는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소철의 기체문 창작은 공적인 창작에 대한 특징을 계

48) (宋)蘇轍著, 曾棗庄·馬德富點校,《欒城第三集》卷十, <藏書室記>, 1565쪽. “予幼師事先君, 听其言, 觀其行事, 今老矣, 犹志其一二. 先君平居不治生業, 有田一廛, 无衣食之憂. 有書數千卷, 手緝而校之, 以遺子孫. 曰: ‘讀是, 內以治身, 外以治人, 足矣. 此孔氏之遺法也.’ 先君之遺言今犹在耳.”

49) (宋)蘇轍著, 曾棗庄·馬德富點校,《欒城第三集》卷十, <墳院記>, 1568쪽. “轍兄弟雖少而仕, 亦流落不偶, 年几五十, 乃始得還朝. 兄氣剛寡合, 已入夏出. 轍碌碌无能輕重, 五年而至尙書右丞, 与聞國政, 以故事得于墳側建剎度僧, 以荐先福.”

승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송대 기체문의 개인화 경향과도 일치한다. 소철 기체문 창작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공과 私 사이에서 형성되었다.

5. 결어

北宋의 文人이자 政治家였던 蘇轍은 40여 년간 지방 관직에서 중앙 정부의 중요 직위까지 정치가로써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그가 살았던 방대한 시대 배경 속에서 정치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풍부한 경험을 하였는데,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가 모두 그의 문장에 집중적으로 투사되었고, 이로 인해 북송 문단에서 독보적인 한 일과를 이루었다.

그의 문장 중 특히 산문은 북송의 정치, 사상, 문화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송의 산문 문체 혁신과 발전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며 후세 산문의 발전과 변천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해 소철의 산문은 중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소철의 記體文은 策論文이나 奏議文보다 작자의 개인의 내면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감정, 생각, 가치관, 상상력 등을 더욱 많이 담아냈다.

앞서 살펴 보았듯, 소철의 기체문은 크게 지방 관직 역임시기와 퇴직 후 潁川에 머무를 때 썼던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기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 관직 역임 시기에는 주로 공적인 장소의 공무적인 기록과 묘사에 집중하면서 記事紀物을 위주로 쓴 반면, 潁川에 머물렀던 시기에 쓴 기체문에서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自我 표현으로 변화했다. 이는 감정적으로 더욱 풍부하고 섬세해졌다. 이러한 소철의 기체문 창작은 앞 시대 문인들의 기체문의 특징인 공적인 창작 문체를 계승하는 동시에, 송대 기체문에서 나타나는 개인화 경향과도 일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기 문단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하면서도 공과 私 사이에서 형성된 소철만의 특징을 잘 담아내었다.

參考文獻

- (唐)李德裕撰, 傅璇琮·周建国校箋, 《李德裕文集校箋》, 北京: 中華書局, 2018.
- (宋)李燾撰, 上海師範大學古籍整理研究所·華東師範大學古籍整理研究所點校, 《續資治通鑒長編》, 北京: 中華書局, 2004.
- (宋)李昉, 《文苑英華》, 北京: 中華書局, 1966.
- (宋)蘇軾, (清)王文誥 輯注, 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北京: 中華書局, 1982.(宋)蘇軾撰, (明)茅維編, 孔凡禮點校, 《蘇軾文集》, 北京: 中華書局, 2004.
- (宋)蘇轍著, 曾棗莊·馬德富點校, 《欒城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 (宋)蘇轍著, 曾棗莊·馬德富點校, 《欒城後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 (宋)蘇轍著, 曾棗莊·馬德富點校, 《欒城第三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 (宋)蘇轍撰, 《龍川略志》, 北京: 中華書局, 1997.
- (宋)姚鉉編, (清)許增校, 《唐文粹》,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86.
- (宋)何遠撰, 張明華點校: 《春諸紀聞》, 北京: 中華書局, 1983.
- (元)脫脫等撰, 中華書局編輯部點校, 《宋史》, 北京: 中華書局, 1985.
- (明)吳訥著, 于北山, 羅根澤校點, 《文章辨體序說》,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62.
- (清)姚鼐著, 蔣立甫、吳孟復主編, 《古文辭類纂評注》,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4.
- 孔凡禮, 《三蘇年譜》,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2004.
- 楊慶存, 《宋代散文研究》,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2.
- 王水照, 《宋代文學通論》, 開封: 河南大學出版社, 1997.
- 張秀賢, 《蘇轍散文研究》, 北京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22.
- 錢穆, 《中國學術思想史論叢(四)》,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19.
- 曾軍, 《從經史到文苑——“記”之文體內涵的源流及變遷》, 《江漢大學學報(人文科學版)》2007. 제1기.
- 曾棗莊, 《蘇轍年譜》, 成都: 巴蜀書社, 2018.
- 曾棗莊·劉琳主編, 《全宋文》, 上海: 上海辭書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 2006.
- 何李, 《唐代記體文研究》, 華東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10.

Abstract

Spiritual express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the creative characteristics of
Su Zhe's style of Jitiwen writing

Jang, Su Hyun

Throughout Su Zhe's life, the grand historical background, profound ideological connotations, rich personal experiences, and exquisite artistic cultivation were all concentrated in his prose creation, making him unique and distinct in the literary world of the Northern Song Dynasty. His prose is not only an important resource in the political, ideological, and cultural fields of the Northern Song Dynasty, but also an important part of the reform and development of prose style in the Northern Song Dynasty. It has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prose in later generations, and has profound literary and cultural significance. Compared with policy papers and memorials, Su Zhe's writings in written form showcase more of his unique personal spiritual and spiritual world. The focus of Su Zhe's writing style varies significantly from the early to the later stages, from the early stage of recording events and objects in public spaces to the later stage of self-expression in private spaces dominated by oneself, presenting a gradual process of internalization and emotional richness and delicacy.

Key words : Su Zhe, writing in style, public and private spaces, tending towards self reflection, Jitiwen

투 고 일 : 2025. 1. 10. / 심 사 일 : 2025. 1. 15.~ 2025. 2. 15. / 게재확정일 : 2025. 2. 20.